

유로코뮤니즘과 南歐政治 : 이탈리아 共産黨의 「歴史的 妥協」의 意義

李 洪 九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I

1976년 총선거는 이탈리아政治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 ⁽¹⁾ 이탈리아共産黨 (PCI)의 득표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투표수의 3분의 1 을 상회하는 34.4 %를 차지하였다는 획기적 狀況이 展開되었다. ⁽²⁾ 그러나 이탈리아政治를 새

(1) 이 論文의 준비는 1980년 여름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Florence)에 머무는 동안에 준비되었다. Giuseppe Di Palma 교수에게서 南歐政治에 關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이 論文의 內容도 그의 영향을 反映하고 있다.

(2) <Table> ITALY: ELECTION RESULTS BY PARTY TO THE CHAMBER OF DEPUTIES: 1946-1976

(In percent)

Party	1946 ^a	1948	1953	1958	1963	1968	1972	1976
Communist	18.9%		22.6%	22.7%	25.3%	26.9%	27.2%	34.4%
Socialist		31.0% ^d	12.7	14.2	13.8		9.6	9.6
Social-Democratic	20.7 ^b	7.1	4.5	4.5	6.1	14.5 ^e	5.1	3.4
Republican	4.4	2.5	1.6	1.4	1.4	2.0	2.9	3.1
Christian-Democratic	35.2	48.5	40.1	42.4	38.3	39.1	38.8	38.7
Liberal	6.8	3.8	3.0	3.5	7.0	5.8	3.9	1.3
Monarchist	2.8	2.8	6.9	4.8	1.8	1.3		
Neo-Fascist		2.0	5.8	4.8	5.1	4.5	8.7 ^g	6.1 ^g
Others	11.2 ^c	2.4	2.8	1.7	1.2	5.9 ^f	3.8	3.4

^aElections for the Constituent Assembly.

^b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still unified in the Partito Socialista Italiano di Unità Proletaria.

^c5.2 percent to the Uomo Qualunque, a right-wing party whose electorate was in part later absorbed by the Neo-Fascists.

^dCommunists and Socialists allied in the Fronte Democratico Popolare.

^e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reunited in the Partito Socialista Unificato (PSU).

^f4.5 percent to the PSIUP, a left-wing socialist party that split from the Socialists after the formation of the PUS in 1966 and dissolved after the elections of 1972.

^gMonarchists and Neo-Fascists unified in the MSI-Destra Nazionale.

로운 局面으로 이끌어간 決定的 계기는 이처럼 큰 勝利를 거둔 共產黨이 政治安定을 도모한다는 名分 아래 第1黨인 基民除(DC)과 協力하겠다는 이른바 「歷史的 妥協」을 劇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데서 비롯되었다. 經濟的 危機를 克服하고 국가운영의 制度的 改善을 위하여 집권당인 基民黨과 妥協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PCI 書記長 베링게는 이미 1973년부터 시사하여 왔다. 그러나 政權에 대한 慾心을 당연히 가져 볼 만한 選舉의 勝利를 거두고서도 오히려 守勢에 몰린 與黨과의 協調를 自請하고 나선 PCI의 決定은 劇적인 要素를 다분히 품고 있었다.

이러한 PCI의 「歷史的 妥協」의 提案은 그 핵심적 內容보다도 共產黨의 戰術적 次元에서 그 性格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共產黨은 그 政策目標과 政治的 手段의 選定에 있어 이미 모스크바의 路線을 벗어나 유로·코뮤니즘의 旗手的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歷史的 妥協」은 이러한 PCI의 基本立場은 再次 修正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共產黨政權의 平和的 樹立이란 目標을 堅持하면서 잠정적인 利益을 위하여 취한 戰術인지에 대하여는 論議의 餘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妥協」을 둘러싼 PCI의 立場을 적절히 理解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이탈리아 共產黨의 性格이나 戰術을 分析한다던가 또는 유로·코뮤니즘의 새로운 傾向을 진단하는 次元을 넘어서 이러한 劇的 狀況이 展開될 수 있는 이탈리아 政治의 文化的 및 구조적 背景을 政治史的으로 해부하여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小考에선 이탈리아 政治의 特色을 融合主義(syncretism)적 전통의 전개라는 次元에서 정리하여 보고 이탈리아 共產黨의 立場도 그러한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理解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後에 「歷史的 妥協」을 聯合的 民主主義(consociational democracy)의 실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이탈리아를 포함한 南歐의 政治史는 北歐나 東歐의 政治史와 전혀 다른 托양에서 展開될 수 밖에 없었다. 北歐의 近代化는 比較的 순조롭게 進行되어 부르주아, 勞動, 農業, 商業 등의 階層이 고루 成長하였고 北歐의 政治制度는 그러한 여러 계층간의 均衡된 關係를 土臺로 하고 있었다. 한편 東歐

의 政治는 大地主와 이에 依속된 農民으로 大別되는 封建적 土地制度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工業의 不在속에서 專制的 官僚政權의 保守的 性向이 政治를 공산주의나 파시즘의 全體主義的 틀로 몰아 넣어 버리게 된다. 이에 比하여 南歐의 政治는 훨씬 複雑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었다. 工業化가 늦고 農業人口가 大多數를 차지한 것은 事實이지만 農業의 內容은 지극히 多樣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商業과 海運業이 存在하였다. 歷史的으로 유럽의 中心으로서의 南歐의 黃金期는 15, 16세기를 頂點으로 사라져 갔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黃金期가 남겨 놓은 文化的, 商業的 및 官僚的 계층은 존속하였고 그들은 南歐의 後進性을 意識하고 이를 克服하기 위한 改革을 시도하는 自由主義的 政治의 主役을 맡게 되는 것이다. 나폴레옹이 전파한 自由主義와 民族主義의 果實은 南歐政治를 改革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고 1860年代에 수립되는 南歐의 政權들은 대체로 이러한 自由主義와 民族主義를 표방하는 새 엘리트층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1860년대를 기점으로 南歐에 自由主義的 政權이 수립되었다는 것이 곧 南歐社會의 결정적 變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政治的 自由化는 부르주아를 주축으로 하는 議會制度의 設立을 가져오지만 土地所有制度를 비롯한 社會의 문제는 큰 變動이 없어 前近代의 형태로 존속하였다. 한편 後進性을 탈피하지 못한 南歐의 經濟는 점차 工業化한 北歐經濟에 依속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國內外의 問題와 直面하게 되는 南歐의 自由主義的 政權이 그 正統性의 危機를 모면하는 政治운영의 方式으로 考案한 것이 「트라스포르미즘」(Trasformismo)이다.⁽³⁾

南歐의 自由主義政權은 비스마르크의 프러시아가 보여준 「保守的 近代化」의 모델을 따를 수도 있었다. 그것은 經濟에 대한 國家의 介入과 政治에 대한 官僚 및 軍部の 統制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第一次世界大戰 때까지 南歐政治의 분위기에서는 強壓의이거나 統制的인 것을 한사코 기피하려는 自由主義的 경향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며 議會政治의 모델이 官僚政治의 모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단지 이 경우에 부각된 問題는 議會政治를 安定되게 運營할 수 있는 부르주아 主導勢力이 不在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產業化가 제대로 實現되지 못한 南歐社會는 전통적 商

(3) 自由主義政權의 時代를 포함한 이탈리아 政治史의 一般的 背景은 Denis Mack Smith, *Italy*(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9).

業階層이 뚜렷하게 存續하기는 하였지만 各界各層을 새로운 政治關係로 統合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부르주아 階層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한편 카톨릭教會의 權力資源에 대한 영향력은 방대한 것이었으며 自由主義 政權樹立에 一役을 담당했던 軍部の 政治的 영향력도 無視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운영된 自由主義 政권은 과거의 王權政治와 전혀 性格을 달리한 革新政권임엔 틀림없었지만 北歐式 議會政治를 뜻하는 것은 勿論 아니었다. 自由主義政權의 權力的 유지는 選舉에서의 決定的 勝利보다는 주요집단을 포섭하고 포용하는 聯立체제의 운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聯立체제 운영의 方式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트라스포르미스모」라고 할 수 있다. 이 方法은 政권을 담당한 세력이 주요한 반대세력을 설득, 매수, 협상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同化시킴으로써 政治적 爭鬪을 없애버리고 광범위한 合意를 바탕으로 한 政治的 聯立化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 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반대파를 變身(transform)시키는 政治적 進술과 전략의 制度化가 과연 民主的인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勿論 論議의 餘地가 크다. 그러나 官僚的 專制에 政治를 떠맡기지 않고 政治的 교섭과 타협으로 政권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트라스포르미스모」의 기능은 평가될 수도 있으며 政治的 融合主義(political syncretism)의 原型으로서 理解될 수도 있다. 이러한 融合主義的 聯立構造는 政治的 극단주의를 豫防하고 中道主義(centrism)를 伸長시킨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⁴⁾

「트라스포르미스모」는 이미 地中海的 政治文化 속에서 오랫동안 存在하여 왔던 「카시키스모」(caciquismo)를 地域的 單位的 利益조정으로부터 國家적 單位的 利益조정으로 確大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그 結果로 大部分의 政黨은 政權爭取를 위한 競爭보다는 權力配分에 참여하는 共通의 利益에 의하여 그 性格이 決定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聯立構造는 選舉의 造作이나 또는 無意味한 形式化를 政治安定의 代價로 치르는 結果를 가져 왔다. 그러한 代價를 치르면서도 命脈을 유지하여 온 南歐의 自由主義政權이 一次大戰을 前後하여 붕괴되는 決定的 要因은 다음 두 가지라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815년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의 세력균형이 붕괴되면서 南歐

(4) trasformismo 를 포함한 political syncretism 의 성격을 이탈리아 政治史의 次元에서 정리한 代表적 例로는 G. Di Palma, "Political Syncretism in Italy: Historical Coalition Strategies and the Present Crisis." A paper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Berkeley, 1977.

의 위치는 지극히 不安하게 되어 버렸다. 1890年代의 殖民地쟁탈전쟁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같이 敗者가 되었으며 一次大戰의 戰雲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갈길을 定하지 못하고 방황하였다. 둘째, 選舉權의 擴大는 大衆의 政治的 動員을 招來하였으며 그 기반이 넓지 못한 自由主義政權은 大衆의 政治참여를 肯定的으로 受容할 能力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더우기 國際的 갈등과 國內的 갈등은 다같이 社會主義를 비롯한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속에서 深化되었고 그 結果는 집진적인 中道の 空白이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中道の 타협과 기존利益의 절충이란 聯立구조로 유지되어 온 自由主義政권이 中道の 空白속에서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었다.

III

一次大戰은 結果的으로 南歐政治를 獨裁化하고 말았다. 獨裁政權 出現의 基本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간단한 대답을 피하고 政治, 經濟, 社會 등 여러 次元에서 分析이 복합적으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自由主義政權의 붕괴가 中道の 空白으로 말미암았다면 獨裁政權의 確立도 바로 그러한 空白과 연관시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中道の 空白을 틈타서 수립된 獨裁政權이 中道主義(centrism)의 유지를 위하여 존속 하였던 政治적 融合主義(political syncretism)에 대하여, 특히 그러한 融合을 可能케 하는 手段으로서의 「트라스포르미스모」에 대하여 어떤 立場을 취하게 되는가는 우리의 關心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關心을 이탈리아에 局限시켜 본다면 全體主義的 倫理國家의 建設을 목표로 내세운 묵소리니의 파시스트政權이 議會政治를 政治的 타협과 操作으로 운영하려는 「트라스포르미스모」를 究탄하고 나선 것은 예상될 수 있었던 사태였다. 그러나 名分的 또는 外形的 次元을 넘어서 實質的 또 內容的 次元에서 파시스트政권이 中道の 타협과 聯立을 政治운영의 方法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하여 어떤 意味에선 「트라스포르미스모」를 한층 더 發展시킨 것은 注意깊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시스트의 融合主義的 傾向을 說明하는 실마리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구체적 性格이 專制主義的이었지 全體主義的이 아니었다는 데서 찾아야 될 것이다.⁽⁵⁾ 이것은 이탈리아 파시즘

(5) 이탈리아의 파시스트통치시기에 關하여는 Edmund Jennebaum, *The Fascist Experience: Italian Society and Culture*(New York: Basic Books, 1972).

이 全體主義的 목표를 내걸지 않았던가 못소리니가 全體主義的 共同體로서의 이탈리아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았었다고 斷言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나 名分은 어찌되었든 정권을 장악한 파시스트는 이탈리아가 고도로 산업화한 독일이나 방대한 자원을 지닌 소련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資本主義的 산업구조를 비롯한 社會的 要素와 구조를 상당한 정도로 包容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 자체가 이탈리아 政治가 지녔던 融合主義的 전통의 結果인지의 與否는 別문제로 치고라도, 그러한 판단이 파시스트의 政治운영을 全體主義的이라고 성격짓기 어려운 方向으로 이끌어 간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資本主義的 企業階層과의 타협이란 側面에서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專制主義的 체제에 가까왔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도 모든 政治的 탄압과 壓制의 수단을 動員하였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러한 手段에만 依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物理的 수단 외에 政治的 수단으로서 融合主義的 전통을 借用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兩面은 「政治的 운동」(fascismo-movimento)과 「정권적」(fascismo-regime)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⁶⁾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은 국민적 단결, 국가적 상징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호소로서 大衆속에 그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모든 반대세력의 無力化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권운영이란 次元에선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파시스트정권의 出現에 앞서거나 또는 關係없이 存立하여 온 여러 集團의 存續을 認定하고 그들과의 共存을 위한 聯立구조를 기획하는 「제한된 多元主義」를 수공한 것이다.⁽⁷⁾ 파시스트와 카톨릭教會와의 共存이 바로 그 代表的 例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치운동과 정권운영을 分離하면 全體主義的 一黨獨裁체제에서 볼 수 있는 黨과 政府의 一元化를 피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나타났었다. 어떤 集團을 타협과 포섭의 대상으로 삼느냐는 選擇은 黨이나 정권의 出現 以前부터 存在하여 온 官僚들에 의하여 전통적 方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例事였다.]

정권의 주체가 自由主義的 세력이든 파시스트이든 간에 融合主義的 聯立 구조는 그 內部的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엔 安定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

(6) Di Palma, "Political Syncretism in Italy," p. 15.

(7) Juan Linz, "An Authoritarian Regime: Spain," *Mass Politics*, eds. Erik Allardt and Stein Rokkan (New York: Free Press, 1969), pp. 302-336.

나 內部的, 또는 外部的 危機가 內部的 균형을 깨뜨리면 聯立構造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二次大戰의 주이가 파시스트의 敗戰을 의심할 수 없는 地境으로 물고 가면서 파시스트의 聯立구조는 內部的 分裂로써 붕괴되고 말았다. 그람씨(Antonio Gramsci)가 지적한 대로 이탈리아의 專制主義정권은 全體主義의 질서를 건설할 만한 文化的 資源을 갖지 못한채 內部的 헤게모니의 不在로 消滅되고 말았다. 政治的 正統性을 밑받침하는 하나의 原理를 갖지 못하고 전통, 지도자, 애국심 등 여러 次元을 混用하여 專制정권을 유지하다가 파시즘은 붕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파시즘의 興亡과 그 성격이 바로 이탈리아 政治文化的 本質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될 수 있다.

IV

二次大戰後의 이탈리아政治는 基民黨의 30餘年에 걸친 長期執權을 그 基本的 틀로 삼고서 展開되었다. 그런데 基民黨의 長期執權은 어디까지나 融合主義의 전통에 입각한 聯立政權이었다는 事實이 이탈리아 政治의 연속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戰後 基民黨의 絶對的 優位確保를 領導한 데가스페리는 融合主義의 聯立구조의 必要性을 너무나 明白히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1948년 선거에서 絶對多數의 議席을 단독으로 차지한 基民黨이 굳이 群小政黨들을 聯立정권으로 迎入한 것은 바로 그러한 「넓은 合意」에 대한 인식의 結果였다. 基民黨세력 確立에 가장 큰 土臺가 된 카톨릭敎會와 大企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여러 階層과 集團의 利益을 고루 調和시키는 폭넓은 中道政黨이 되겠다는 方針 아래 黨財政과 조직의 獨立을 위하여 政府의 기구와 財政을 급속도로 팽창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融合主義의 立場에서 비롯된 것이다. 勿論 이렇듯 급격하게 팽창시킨 정부지출은 政治的 利益도 가져왔지만 基民黨의 과도한 파벌화란 副作用을 초래한 것도 事實이다.

低賃金 勞動의 活用등을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經濟의 「기적적」 成長은 基民黨을 핵심으로 한 中道-右派 聯立구조를 계속 安定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高度成長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北部 工業地帶에서의 先進고용상태는 많은 南部住民들의 大移動을 가져왔고 이러한 移住民의 문제는 政治的 세력분포의 문제와 결부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基民黨의 成功

에 못지않게 共產黨도 그 세력팽창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스탈린의 죽음, 헝가리사태등을 오히려 黨勢強化의 계기로 삼은 공산당의 팽창은 그 黨員數가 250萬名에 이르는 氣勢를 보였다. 이러한 狀況에 直面한 基民黨은 1963년 社會黨과의 聯立정권을 수립함으로써 融合主義的 전략을 中道—左派 聯立이란 方向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러한 中道—左派聯합은 별로 成功하지 못하였다. 共產黨의 득표수는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늘어가는데 比하여 社會黨의 득표수는 줄어갔고 1969년에 이르러서 社會黨은 급기야 두쪽으로 分黨하여 버렸다.⁽⁸⁾

9개나 되는 多黨의 競爭이 수반하는 權力의 分散, 體制自體의 變革을 주장하는 극단적 政黨의 存在, 무책임한 財政支出과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危機에 봉착한 基民黨이 政權을 계속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탈리아 政治風土가 中道體制의 중요성에 민감하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聯立구조의 不安定이 바로 中道聯立의 存續을 보장한다는 一見 모순된 命題가 이탈리아 政治에서는 적지 않은 妥當性을 지닌 것이다. 大部分의 主要政黨이 政府의 財政支出을 둘러싼 惠擇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 第4共和國과는 달리 選舉民의 투표性向이 상당히 安定되어 있었다는 것, 多黨制이지만 基民黨과 共產黨이 그 가운데서 兩黨制에 흡사한 安定勢를 어느 정도 제공하여 왔다는 것, 外交政策을 둘러싼 큰 爭點이 없었다는 것등이 聯立구조의 存續을 可能케 한 要因으로 꼽힐 수도 있다. 그러나 基民黨을 핵으로 한 中道聯合이 存續하는 가장 큰 理由는 共產黨이 이를 수긍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은 1976년 以前에도 의심할 餘地가 없었다. 中道세력의 붕괴와 그에 따른 空白이 파시스트의 登場을 가져왔다는 歷史的 教訓을 공산당은 잊지 않고 있다. 또 基民黨을 비롯한 中道勢力도 파시스트에 대한 抵抗운동에서 함께 싸웠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二次大戰이 끝나기 以前인 1944년에 틀리아티는 이미 聯合戰線의 必要를 強調하였었다. 그리고 1947년 바티칸과의 共存關係를 憲法에 明記하는 데도 공산당은 合意하였었다. 한마디로 中道聯立을 支持하는 국민들을 敵으로 한 투쟁은 政治적으로 成功할 수도 없으며 단지 政治의 暴力化를 가져올 위험을 크게 할 뿐이라는 것이 이탈리아共產黨

(8) 二次大戰以後의 이탈리아공산당의 일반적 성격에 관하여는 Donald Blackmer, "Continuity and Change in Postwar Italian Communism," *Communism in Italy and France*, eds. Donald Blackmer and Sidney Tarro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 21-68.

의 판단이라고 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1976년 선거에 임하는 이탈리아政治는 정녕 심각한 危機에 봉착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政治的 不安定의 요소에 대하여 완충적 역할을 하여 오던 다음 세 개의 방파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첫째로 經濟成長의 둔화였다. 둘째로 국민의 투표성향이 安定性을 잃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유로코뮤니즘의 깃발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消散된 듯한 幻想을 자아내었다. 이렇듯 基民黨을 주축으로 한 中道 聯合이 심각한 危機에 처하여 있을 때 選舉에서의 큰 勝利에도 不拘하고 「歷史的 妥協」을 제안한 공산당은 과연 融合主義의 전통에 충실해야 될 특별한 理由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V

1976년 이탈리아 총선거는 中道聯合時代에 終止符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다.⁽⁹⁾ 基民黨이 聯合의 대상으로 삼던 自由黨과 社會民主黨이, 即 中道右派와 中道左派가 다함께 급격히 退潮하였다. 이러한 事態는 지오바니 사토리의 말대로 聯合구조를 政治的 比重에 있어 핵심이 아닌 외곽정당의 교체 (peripheral turnover)로써 유지하여 오던 時代가 끝났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¹⁰⁾ 이렇듯 中道的 聯合구조의 유지가 不可能하여졌을 때에 이를 代置할 수 있는 政權운영의 方式으로는 政權교체 (alternative government)와 舉國의 聯合政權 (grand coalition) 가운데서 擇一하는 것이다. 「歷史的 妥協」은 結局 後者를 政權운영의 方式으로 擇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共産黨이 舉國內각의 方式을 擇한 것은 단순히 전통적 融合主義에 따르려는 安일한 決定인가, 또는 새로운 狀況에 直面하여 創造的으로 開發한 새 戰略인가?

南歐政治에서의 혁명적 政權교체나 획기적 聯合구조의 변혁은 대체로 融合主義의 方法에 의거하는 것 같다는 것은 近年에 있었던 스웨인의 政治變動

(9) 1976년 총선거 결과에 관한 分析의 例로는 G. Sani "The PCI on the Threshold," *Problems of Communism* 25 (November-December, 1976), pp. 27-51.

(10) G. Sartori, "European Political Parties: The Case of Polarized Pluralism,"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eds. Joseph Lapalombara and M. Wein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 137-176.

의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에서의 憲政秩序의 改革은 바로 融合主義의 聯立구조의 구축과 比例함으로써 舊勢力과 新勢力의 共存을 통하여 혁명적 分裂을 예방하였다. 스페인共産黨이 그러한 融合主義의 聯立구조를 支持한 것은 內亂을 유발하는 혁명적 分裂은 결국 공산당을 위축시키고 파시스트獨裂의 可能性을 높인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共産黨의 「歷史的 妥協」도 그러한 狀況의 必要에 대한 적절한 對應으로서 融合主義의 聯立을 새로운 次元에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6년 총선거가 공산당의 득표율을 급격히 上昇시켰지만 同時에 基民黨의 政治的 위치가 얼마나 確固한가를 보여준것도 事實이다. 基民黨과 共産黨이 거의 伯仲勢를 보였다는 것은 그 어느 쪽도 單獨의 hegemon으로 이탈리아政治를 運營할 수는 없고 새로운 政權운영의 方法이 모색되는 전환기에는 兩黨이 協調하는 것이 서로 有利하다는 狀況의 論理를 바탕으로 새로운 融合主義의 聯立이 구상된 것이다.

그러나 革命的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공산당이 부르주아정 당과의 妥協을 통하여 革命的 事態의 勃發을 豫防한다는 것은 정녕 하나의 모순이며 딜레마에 틀림없다. 커쉬하이머가 지적한대로 實用性을 강조하는 엘리트의 타협적 역할, 정당과 정치인이 지닌 극단성의 점진적 해소, 그리고 福國國家의 政策과 制度의 확장은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革命的 政黨을 妥協의 政黨으로 變形시킬 수 있다.⁽¹¹⁾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國民의 투표경향은 극단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지만, 투표를 통한 政權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國民的 合意가 造成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지적한대로 부르주아 階層이 北歐國家에 比하여 미약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革命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이 存在하는 限 文化的 및 구조적 兩極化는 불가피한 것이다. 또 그러한 兩極化는 內亂의 위협마저 內包하고 있으며 共産黨은 바로 그 위협을 感知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러한 위협에 대하여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壓力도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多數決의 原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政權교체의 方式은 바로 內亂의 可能性을 現實化하는 지름길이라는 事實도 공산당은 잘 알고 있다. 政治的 兩極化가 해소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순히 多數決의

(11) O. Kirchheimer,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p. 177-200.

原則에 따라서 政權을 잡는 것이 얼마나 無謀한 것인가를 칠레事態가 敎訓으로 남겨 놓았다. 칠레의 아옌데는 選舉에서의 勝利로 政權을 장악한 것이 바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權力을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였었다. 그러한 失手를 再現하지 않기 위하여 이탈리아共産黨은 多數決의 方法 대신에 「歷史的 妥協」이란 聯立方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妥協」의 선택이 革命과 妥協 사이의 딜레마를 自動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融合主義의 聯立으로서의 「歷史的 妥協」은 단순히 「트라스포르미즘」의 전통을 現代化한 것에 不過하다고 판단될 餘地도 없지 않다. 卽 各별한 哲學이나 전략의 不在속에서 단순한 實利追求의 方法으로 考案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歷史的 妥協」이 단순히 전통적 融合主義에 입각한 非革命的 實利追求가 아니고 聯合的 民主主義(consociational democracy)의 새롭고 創造的인 적용이라는 해석은 注目할 만한 것이다.⁽¹²⁾ 聯合的 民主主義란 이데올로기적 分裂이나 政治文化的 破裂이 극심한 社會에서 그로 말미암은 政治的 갈등의 深化가 가져오는 不安定의 代價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意識하는 各集團의 엘리트가 擧國的인 聯立구조를 구축하여 安定된 政治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지칭한다.⁽¹³⁾ 벨기에, 荷蘭, 오스트리아등이 聯合的 民主主義의 例로서 꼽힐 수 있으며 그러한 體制에서 단순한 多數決의 原則이 受容될 수 없는 것은 勿論이다.⁽¹⁴⁾ 이러한 聯合的 民主主義의 모델은 이탈리아共産黨이 創造적으로 變形하여 使用하였다는 假定은 共存의 단위를 文化的 破裂이나 이데올로기적 分裂의 結果로 보지 않고 「多元主義」와 「패권주의」로 보았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共産黨의 革命的 세력이 社會변동의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와 노력을 유지한다는 立場과 다른 한편으로는 現實的 狀況속에서 여러 갈래의 共存勢力이 함께 存在할 수 있다는 多元論的 立場을 平和的으로 並存시키는 새로운 聯立的 民主主義의 구상이 바로 이탈리아共産黨의 「歷史的 妥協」의 전략을 產出하였다는 것이다.

(12) Luigi Graziano, "The Historic Compromise and Consociational Democracy: Toward a New Democracy." A Paper delivered at the IPSA XIth Congress, Moscow, August 12-18, 1979.

(13) H. Daaldr,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Theme," *World Politics* 26(July, 1974), pp. 604-621.

(14) A. Lijphart, *The Politics of Accomodation: Pluralism and Democracy in the Netherlan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歷史的 妥協」이 이탈리아共産黨의 새로운 聯合的 民主主義 建設의 기획인 지의 與否는 別문제로 치고라도 그것이 단순한 實利追求나 안일한 現實적응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現實的인 制約을 감안하면서 政治的 및 社會的 次元에서 共産세력의 침투를 계속 확장시키는 새로운 手段으로서 基民黨과의 타협이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共産黨이 「歷史的 妥協」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은 社會民主主義의 실현이 아니라 社會主義 即 공산주의의 實現을 民主社會라는 환경 속에서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民主的이며 多元的인 환경을 利用하여 패권주의적 目標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소개한대로 그러한 企劃을 聯合的 民主主義의 구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패권주의와 多元主義는 극단적으로 對立되는 立場으로 그들의 共存이란 결국 패권주의적 세력의 확장을 許用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위험이 크다.⁽¹⁵⁾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은 단순한 選舉의 勝利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탈리아共産黨은 칠레의 경우에서 배웠다. 選舉에 의한 政권교체가 受容될 수 없을 때에 使用될 수 있는 政권쟁취의 두 가지 方法은 레닌의 경우와 같은 暴力革命이나 聯立政권을 통한 社會全般에의 지속적인 침투이다. 이탈리아共産黨이 後者를 擇한 것은 一時的인 편이 때문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축적된 이탈리아적, 그리고 유럽적 공산주의의 철학과 입장에 토대를 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 혁명의 目標을 단순한 기존政권의 전복보다도 설득 및 동화를 통한 전체 社會의 개조에 두었다. 이탈리아공산당이 추구하는 勝利는 단순한 政권의 쟁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大多數의 이탈리아 市民들의 참여와 支持로 지탱되는 이른바 새로운 民主社會의 建設인 것이다. 그러한 目標을 위하여 이탈리아공산당이 선택한 「歷史的 妥協」의 전략은 이탈리아 政治文化와 政治史의 次元에서 새로운 融合主義 또는 새로운 聯合的 民主主義의 시도라고 쉽사리 理解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과연 政통적인 공산당의 立場에 부합하는가에 관하여는 論議의 餘地가 至大하다. 그러기에 이탈리아共産黨에 의한 「歷史的 妥協」은 유로코뮤니즘의 劇的인 實驗임에는 틀림없지만 歷史的 意義의 評價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後에야 可能할 것이다.

(15) 패권주의와 다원주의의 對立에 관하여는 Robert Dahl, *Polyarc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Chapter I.